

‘오월영령 숭고한 정신 받들자’ 5·18 41주년 추모제 거행

5·18유족회 주관 행사
 보수정당 사상 첫 초청
 “새 미래 걸음 발전해야”

5·18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식을 하루 앞둔 17일 오월 영령의 숭고한 뜻과 정신을 높이 기리는 추모제가 거행됐다. <관련기사 2·3면>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는 5·18민주유공자 유족회 주관으로 5·18민중항쟁 제41주년 추모제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추모사와 헌화·분향으로 불의한 권력에 맞서 희생한 오월 영령들의 넋을 기렸다.

추모제에는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회원과 이용섭 광주시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하유성 광주보훈청장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권은희·이병훈·이형석·조오섭·민형배·이용민 의원 등이 추모에 동참했다.

특히 보수정당으로는 사상 최초로 5·18 단체 초청을 받은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당 국민통합위원장), 성일종 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과 성 의원은 추모제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정동년 5·18기념재단 이사장, 오월 어머니 좌석을 찾았다. “광주가 자유의 공기를 대한민국에 주신 데 감사하다. 통합의 뜻을 이루

겠다, 5·18이 국가를 위해 빛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 등의 인사를 건넸다.

제1부 추모제에서는 김영훈 5·18유족회장, 장성암 구속부상자회장 권한대행,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가 5·18 항쟁 희생자의 원혼을 위로하는 제례를 올렸다.

2부 추모식은 개식 선언, 국민의례, 추모사, 유가족 대표 인사말, 추모시 낭송,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헌화·분향, 도시락 나눔 순으로 진행됐다.

유가족과 참석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한 뒤 헌화·분향을 하고 추모식을 마쳤다. 추모식 과정에 일부 희생자 어머니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추모사를 통해 “오월광주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온전히 자리매김할 때까지 산 자의 몫을 다할 것이다. 5·18을 경험한 세대와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함께 나눔과 연대, 화합과 포용의 광주정신에 굳게 발 딛고 오월 영령들이 못다 이룬 꿈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고 밝혔다.

김영훈 5·18유족회장은 “5·18의 숭고한 정신을 지켜나가기 위해 모든 힘을 모으겠다. 5·18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한 입법이 진행되고 있고 청춘을 뺏긴 열사들의 정신과 의미를 변함없이 지켜나가기 위한 뜻 깊은 활동들도 결실을 맺고 있다”며 “41년 세월이 80년 5월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자리를 넘어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걸음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1주년 5·18 민주묘지 ‘울음바다’ 5·18민주화운동 41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한 어머니가 열사 묘 앞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한편,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에 힘 쓰는 가운데 치러졌다. 추념문에서 참석자 체 온 측정 뒤 손 소독제 사용을 권고했다. 예년 리 두기를 유지했다. 에 비해 참석 인원도 줄었고, 의자 간격도 거 기동취재본부

영암군, ‘생태계 교란’ 외래어종 수매

베스·블루길 kg당 4000원

영암군은 내수면의 고유 토산어종 보호를 위해 생태계 교란 외래어종에 대한 수매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18년부터 군비로 시작된 외래어종 퇴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3월30일 1차로 12.5t(5000만원), 5월14일 2차 3.25t(1300만원)을 수매했다.

군은 확보된 예산이 소진될때까지 수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매대상 외래어종은 베스와 블루길로 관내 내수면어업 허가자에게 보상단가는 kg당 4000원이다. 군은 수매된 외래어종에 대해서는 비료 또는 사료로 희망하는 업체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방정재 산림해양과장은 “내수면 외래어종 퇴치사업으로 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어종의 개체수를 줄이고, 코로나19로 힘든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어가경영 안정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기자

80대 치매노인, 백신 30여분새 잇단 접종...관리체계 도마위

“전산시스템 확인 절차 미흡”

광주에서 80대 치매 노인이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30여 분 사이에 잇따라 맞은 사실을 예방접종센터 측이 뒤늦게 안 것으로 드러나 관리 체계가 도마위에 올랐다.

17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서구 주민 8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8일 지역 예방접종센터에서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대상자였다. A씨는 같은날 오전 9시55분께 정해진 절차대로 2차 접종을 마쳤지만, 출구를 통해 센터에

다시 입장했다. A씨의 재입장 사실을 확인한 자원봉사자가 접종 여부를 재차 물었으나, 치매 증상이 심한 A씨는 “안 맞았다”고 답했다. 자원봉사자는 A씨를 임구로 안내해 접종 대상자인지 여부를 전산시스템 상 조회했으나, 센터 측은 당일 접종 예약자인지만 확인했다.

결국 A씨는 2차 접종을 마친 지 28분 만에 또다시 화이자 백신을 맞았다.

방역당국은 A씨의 접종 완료 내용을 전산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중복 접종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과용량 접종자로 분류, A씨를 센터 내에 추가로 30분간 머물도록 안내하고 이상 반응 여부를 살폈다.

접종 이후 일주일 간 A씨의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했으나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 다만 A씨가 폐렴 증상으로 최근 입원함에 따라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19일(수) 석가탄신일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청정에너지의 오늘, 한수원이 펼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 청정에너지가 있는 곳 그 어디라도 한수원이 찾아가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에너지 스카우터 한수원

